

## 博士學位論文

# 沈金鰲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吳恩永·尹暢烈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 對沈金鰲의 生涯及 醫學思想의 研究

吳恩永·尹暢烈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通過對沈金鰲의 生涯及 醫學思想의 研究, 得出如下結論. 沈金鰲(1717-1776) 字芋綠, 號汲門. 晚年自號尊生老人. 清代 江蘇無錫縣人. 他的醫學著作中, 既包括內·外·婦·兒等臨床各科의 內容, 又涉及理法方藥脈象養生等多方面의 內容. 他整理了秦漢到明清時期의 數百種文獻資料, 數量極其龐大. 另外, 他在總結前人經驗의 基礎上, 寫出了值得後人借鑑의 寶貴의 心得體會. 在沈氏一生所著의 醫書中, 有關『雜病源流犀燭』의 內容, 占居了其著書篇幅의 一半以上. 他通過分析各種雜病의 發病原因及延變規律, 揭示了具體의 辨證施治方法. 其所著의 『傷寒論綱目』不僅闡明了仲景深奧理論內涵, 而且重新補注了『傷寒論』의 脫簡斷文及簡目墜缺.

關鍵詞: 沈金鰲, 芋綠, 『雜病源流犀燭』, 『傷寒論綱目』

## 1. 緒 論

婦人科學은 東洋醫學의 重要한 部分의 하나로써, 女性의 生理·病理와 診斷·治療를 통해서 女性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다. 婦人科는 그 기록이 古代의 殷墟의 甲骨文이나 春秋戰國時代의 馬王堆醫書의 『胎產書』와 『五十二病方』 및 『黃帝內經』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이후로 仲景의 『金匱要略』과 王叔和의 『脈經』, 巢元方의 『諸病源候論』, 孫思邈의 『千金方』,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등의 많은 醫籍을 통해 婦人科의 理論과 臨床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sup>1)</sup> 明代에 이르러서는 『萬氏婦人科』와 『校註婦人良方』등을 비롯한 많은 婦產科 專門書가 출간되고 婦產科 特有의 辨證論治體系가 확립되어서 婦產科의 이론과 임상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基礎위에서 清代의 婦產科는 많은 발전과 더불어 변화를 겪게 되는데, 歷代의 어느 시기보다 理論의인 면과 臨床水準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清代 末期에는 西洋醫學이

1) 趙勉齋·朴炫局, 古代婦產科의 醫史學의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9, 1996, p88.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東洋醫學的인 방식 이외에 새로운 방법이 婦産科에서 시도됨으로써 큰 變革期를 거치게 된다<sup>2)</sup>.

沈金鰲는 清代 初中葉인 乾隆年間에 활동하였던 醫家로서, 이 시기는 清代에서도 文物이 繁盛하였던 康·雍·乾의 三朝에 속한다. 清朝의 士大夫들은 여러번에 걸친 탄압과 懷柔로 말미암아 모두 考證하는 學問에 전념하게 되었고, 이러한 實事求是의 학문태도는 乾隆·嘉慶年間에 가장 盛行하였는데, 종래의 空理空談을 배척하고 客觀的인 방법을 取하여 학문의 각 方面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었고, 醫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淸初의 醫學도 마찬가지로 考證에 重點을 두게 되어서 喻嘉言·張隱庵·高士宗·徐大椿·柯韻伯·尤在涇·汪詡庵·魏玉橫·黃元御·陳修園·沈金鰲·程鍾齡 등과 같은 이들이 또한 古書를 研究하고 文獻을 整理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였다.<sup>3)</sup>

이 시기에 활동하였던 沈金鰲 또한 젊어서 儒學을 깊이 있게 공부하였고 中年 이후에 醫學에 전념하였으므로, 그 시기의 考證學의 學風에 影響을 많이 받아서, 醫學에 있어서도 實事求是의 태도를 堅持하였다. 그래서 그 根源을 추구하여 『內經』, 『難經』을 비롯한 前賢의 醫書들을 정밀하게 探究하고 分析하여, 이를 그의 一生동안의 經驗과 함께 集大成하여 『沈氏尊生書』 7종 72권을 著述하였다. 여기에서 歷代醫家들의 傷寒·雜病·婦人·小兒·本草·脈法에 대한 광범한 연구를 통해 前代의 證治方藥에 대한 體系의인 整理를 했다.

『婦科玉尺』은 『沈氏尊生書』 七種書중의 하나로써, 婦人科의 求嗣, 月經, 出産등과 관련된 諸疾病에 대해서 歷代諸家의 醫論들을 研究分析하여 沈金鰲 자신의 臨床經驗과 함께 集大成

한 綜合的인 婦人科 書籍이다. 『婦科玉尺』은 沈氏 자신의 獨創的인 發明이라고 할 만 한 것은 없으나, 歷代醫家의 理論을 取捨選擇함이 그 題目에 걸맞을 만큼 세심하고 정밀하여 臨床에 活用하는데 가치가 있다. 또, 明清代의 婦人科 專著로 萬全의 『萬氏婦人科』, 王肯堂의 『女科證治準繩』, 武之望의 『濟陰綱目』, 蕭頊의 『女科經綸』, 傅山の 『傅青主女科』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婦科玉尺』이 清代의 婦人科 綜合書籍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서, 以前까지의 婦人科學의 成果를 總括的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에 著者는 沈金鰲의 醫學學術思想의 成果에 대해 研究·考察하여 보기로 하겠다.

## II. 本 論

### 1. 沈金鰲의 生涯

沈金鰲의 字는 芋綠이고 號는 汲門이며, 晩年에 自號를 尊生老人이라 하였으며, 清代 江蘇無錫縣人이다<sup>4)</sup>. 清代 康熙 五十六年(1717年)에 태어나서 清代 乾隆四十一年(1776年)에 卒하였다. 어려서부터 儒學을 좋아하여 經典을 널리 읽고 詩文을 공부하였으며, 儒學을 통해서 醫學을 공부하였는데, 青年時에 方書를 읽기를 좋아하여 하나하나를 다 정밀하게 하기를 求하였다. 그의 兄 崧瞻이 『雜病源流犀燭』 序文에서 말하기를 “내 동생 芋綠은 古學에 博識하고 經史에 밝아서 一生동안 學問에 充實하였다. 대략 40세 以前에는 오로지 儒書에 뜻을 두었고, 40세 以後에는 醫學만을 공부하였다. 그래서 著作이 매우 豊富한데 儒書에는 『芋綠草堂稿』 여러 卷과 醫書에는 『沈氏尊生書』 여러 卷이 있다<sup>5)</sup>.”고 하였으니, 四十以前에는 儒

2) 趙勉彙·朴炫局, 明清代 婦産科의 醫史學的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10, 1997, p417.

3) 俞慎初 著, 中國醫學簡史, 福建科學技術出版社, 福建, 1983, p. 306.

4) 陳道瑾 薛涇濤 編, 江蘇歷代醫家誌,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 133.

학을 精密하게 研究하여 그에 관련된 저술이 많았고, 四十以後에는 醫學에 專心하여 醫學著作 또한 많았다. 李瀚章이 序言에서 沈金鰲가 中年 이후에 醫學을 공부하게 된 緣由에 대해 簡述하였는데, “처음에는 醫學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史記·扁鵲傳』을 읽고서 茫然해 하니 或者가 꾸짖어서 말하기를 한가지라도 알지 못하는 儒學者의 羞恥라고 하니, 이에 奮發하여 古方書를 널리 求하여 보았다<sup>6)</sup>.”라고 한 것과 같이, 처음에는 儒學을 공부하는 중에 學者로서 알지 못함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專攻하게 되었다.

그는 일찍이 儒學을 공부하였고, 乾隆年間에 科擧(孝廉)에 及第하여 訓導<sup>7)</sup>에 選拔되기를 기다렸다. 孝廉<sup>8)</sup>에 합격하고서 華希閔·秦蕙田·顧棟高 등을 좇아서 함께 공부하였으며, 壯年에는 經史에 博通하고 詩文을 공부하여 文才를 두루 갖추었다. 그런데, 進士시험을 여러 번 보았으나 及第하지 못한 연유로 詩文을 버리고 醫學을 배웠으며, 40歲後에는 오직 醫學에 정진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不爲良相 便爲良醫”라 하였다<sup>9)</sup>.

그의 儒學관련 저작으로는 『芋綠堂文稿』, 『尚書隨筆』이 있으니, 『四庫全書館』에 기록이 보인다. 또한 『毛詩隨筆』十卷, 『易經隨筆』十卷, 『體畫吟』二卷, 『大學』一卷, 『左傳列國』十六卷, 『楚詞箋』二卷, 『離騷讀』一卷, 『屈原名物滙考』四卷, 『金石詞例』四卷이 있는데, 모두 『無錫縣志』에 실려 있다. 이 외에 『沈氏宗譜』의 記載에 의하면 『試律韶音』四卷, 『唐詩發蒙』四卷, 『文賦詩詞稿』十四卷이 집안에 전해진다고 한다<sup>10)</sup>.

그는 40세 이후에는 醫學에 專攻하여 仲景 以下의 여러 名家의 醫書를 탐독하였다. 또 명의 孫慶曾<sup>11)</sup>에게서 의학을 배웠는데, 그는 吳門(지금의 蘇州)의 葉天士와 同學하였으며, 醫術이 꽤 精密하였고, 더욱이 天然痘를 잘 치료하였으며, 沈金鰲가 그 秘傳을 다 얻어서 마침내 醫術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名士인 周文俊이라는 사람이 肝病을 앓았는데, 醫生이 濕病으로 誤治하여 燥劫之藥을 投藥하여 20여일을 끌어서 목과 혀가 마르고 이빨과 턱이 모두 검으며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만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認定하였다. 沈氏가 診治한 뒤에 衆議에 강력히 반대하여 平肝清火之劑를 투여하여 병이 쉽게 나았고, 周文俊을 回生시킴으로 인해 張方平이 다시 태어난 듯하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에게 再平이라 號를 붙였다<sup>12)</sup>고 한다.

『沈氏尊生書』의 奇豐韻의 序에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항상 讀書를 함에 있어서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마땅히

5)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25.

余弟芋綠은 博古明經하여 一生篤學이라 大約四十以前에 專志儒書하고 四十以後엔 專攻醫學이라 故著作甚富하니 于儒則有『芋綠草堂稿』若干種하고 于醫則有『沈氏尊生書』若干種이라.

6)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386.

其始에 未嘗學醫이라가 偶讀『史記·扁鵲傳』而茫然이라 或이 誦之曰 一事不知라도 儒者之恥라하니 于是에 發憤遍求古方書라.

7) 訓導: 학교의 敎員(漢韓大字典).

8) 孝廉: 科擧에서 擧인의 다른 이름. 明·清代에 鄉試에 합격한 사람의 다른 이름. 漢代, 武帝가 각 郡國에서 매 년 효성스럽고 청렴결백한 사람을 한 사람씩 추천하게 한 데서 유래.(中韓辭典)

9)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1197.

沈金鰲, 張慧芳等 点校, 婦科玉尺(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6, p. 3.

10)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97.

11) 孫慶曾: 孫從添(1692~1767). 字는 慶曾이며 號는 石芝로서 江蘇 常熟人이다. 『石芝醫話』, 『活人精論』等書를 著作함. 『石芝醫話』는 『吳醫匯講』에 실려 있다.(洪元植·尹楊烈 編著, 中國醫學史, 一中社, 2001, 서울, p. 442.)

12) 徐寄鵬, 沈金鰲先生傳略, 江蘇中醫, 1963, 3. p. 34.

天下를 이롭게 하고 救濟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하며, 文字로 科擧에 及第하고 功名을 널리 알리는 데에 戰戰兢兢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하였고, 나중에 거듭 試驗을 보아도 쓰이지 않자 歎息하여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良相이 되지 못하거나 마땅히 良醫가 될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醫術으로써 濟人하겠다.’<sup>13)</sup>라 하여 책을 읽음에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을 우선하였고, 功名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여 여러 번 試驗보고도 科擧에 及第하지 못하였을 때에 醫術으로써 百姓을 救濟하고자 하였으니, 그의人品과 德望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또한 醫術의 範圍가 매우 넓어서 內·外·婦·兒 各科에 精通하였고, 一生의 著述이 매우 豊富하여 『脈象統類』一卷, 『諸脈主病詩』一卷, 『雜病源流犀燭』<sup>14)</sup>三十卷, 『傷寒論綱目』十八卷, 『幼科釋謎』六卷, 『婦科玉尺』六卷, 『要藥分劑』十卷 등 七種이 있는데, 이들을 總括하여 『沈氏尊生書』라 부른다. 이 著作들은 다 그의 末年에 완성이 되었으며, 臨床에서의 診斷·用藥 및 內科·小兒科등의 질병의 症·治·方·藥에 대해서 주로 論述하고 있다. 그 중에서 『雜病源流犀燭』三十卷이 비교적 雜病方面에 영향을 미친 著作이다. 이 외에 『全國中醫圖書聯合目

錄』의 記載<sup>15)</sup>에 의하면, 『痧脹源流』, 『痧症燃犀照』, 『沈芋綠醫案』, 『婦嬰三書』 四種이 더 있는데, 考證에 따르면 僞作이거나 다른 사람의 著作이라 하며, 沈氏의 著作이 아니라 한다. 그의 著作은 새로운 醫說을 提起하기 보다는, 주로 『靈樞』, 『素問』에서부터 宋·元·明의 여러 醫家들의 精華를 광범하게 흡수하고 脈證을 參照하여, 거기에 자신의 경험을 결합시켜서 整理論述한 것으로, 條理가 整然하며 寒溫攻補에 대해 寸우침이 없었으며, 특히 內科雜症과 婦科방면에 獨創의인 見解가 많아서 學術과 臨床應用면에서 비교적 높은 가치가 있다<sup>16)</sup>.

## 2. 『沈氏尊生書』版本<sup>17)</sup>

『沈氏尊生書』는 沈氏의 晩年の 著作으로 初稿가 乾隆38年(1773년)여름에 完成되어 乾隆38年에서 乾隆39年사이에 刊行되어 乾隆39年十二月 혹은 그 후에 完刊되었다. 그러므로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에 “乾隆38年刻本<sup>18)</sup>”이라 쓰인 것은 “乾隆39年刻本”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책은 沈氏가 二十餘년간 심혈을 기울인 結晶으로서, 또한 그의 臨床心得의 總結이라 할 수 있다.

『沈氏尊生書·總自序』의 記載에 의거하면: “乾隆38年癸巳季夏上浣에 芋綠沈金鰲가 自書하다”라 하였으니, 그 책의 原稿가 乾隆38年여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沈氏尊生書』 總序에서 俞琨가 이르기를, “沈氏의 著作이

13)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3.

嘗謂余曰 吾輩讀書 無論事之巨細 皆當懷利濟天下之心 非落落于制學文字博功名便一己爲也. 後屢試京兆不售 嘆曰: 昔人云不爲良相 當爲良醫 余將以技濟人也.

14) 犀燭: 犀照 또는 燃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燃犀: 傳說에 罽那국의 溫嶠라는 사람이 牛渚磯에 이르렀을 때, 물 밑에서 음약소리가 들리는데, 물이 깊어서 살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아래에 怪物이 많다고 이르기에, 嶠가 犀角을 태워서 비추어 보니, 잠간사이에 水族이 불빛에 었드렸는데, 기이하고 특이한 형상이었다. 南朝의 宋나라 劉敬叔의 異苑 일곱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다. 晉書의 『溫嶠傳』에 “燬犀角”이라고 써 있다. 宋의 蘇軾의 分類東坡詩 20번째에 壽州李定少卿出饑城東龍潭上이라는 詩에 “未暇燃犀照奇鬼 欲將燒燕出潛虬”라 하였다. 나중에 사물을 밝게 비추는 사람을 燃犀라 말하였다.

15) 薛清泉 主編,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1, p. 400, 436, 634.

16)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1197.

傅維康 編, 中國醫學史, 醫聖堂, 서울, 1993, p. 438.

17)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p. 1197~1201.

18) 薛清泉 主編,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1, p. 733.

키만큼이나 많은 중에서 이 책의 완성이 가장 늦은데, 책을 출판하려 함에 내게 서문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sup>19)</sup>라 하였는데, 이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이 책은 乾隆38년 여름에 雕版하여 印行하였다고 볼 수 있다. 『雜病源流犀燭·自敘』에 따르면: “乾隆癸巳清明前一日에 錫山の 沈金鰲茅綠氏が 自書하다”라 하였으니, 『雜病源流犀燭』 하나는 乾隆38年(1773년)봄에 原稿를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婦科玉尺·自序』에 “乾隆甲午清明前二日에 無錫의 沈金鰲가 自書하다”라 하였으니, 『婦科玉尺』은 乾隆39年(1774년)봄에 原稿를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傷寒論綱目·自序落款』에 “時乾隆三十九年甲午十一月申浣에 沈金鰲茅綠氏が 書하다”라 하였으니, 『傷寒論綱目』은 乾隆39年(1774년)十一月에 原稿를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幼科釋謎·自序』에 “時乾隆三十九年甲午十二月上浣에 無錫의 沈金鰲茅綠氏が 自書하다”라 하였으니, 『幼科釋謎』는 乾隆39年(1774년)十二月에 原稿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序中에서 또한 “前著인 『傷寒綱目』과 『雜病源流』와 『婦科玉尺』은 다 가습과 손과 눈에 흰게 깨달아서 일일이 글로 옮긴 것이다.<sup>20)</sup>”라고 하였는데, 『要藥分劑·序』에는 시간과 나관이 없으므로, 뒷 문장만을 미루어 본다면 『要藥分劑』의 完成이 가장 늦게 되어 乾隆39年12月 이후에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책의 刊行年度는 일러도 乾隆39年12月보다 앞서는 않는다. 혹자는 過度한 疲勞의 누적으로 沈氏가 책을 完成한 一年 뒤에 바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기도 한다.

『沈氏尊生書』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대략 그

序文의 시간만 보아도 전후로 2年은 걸렸는데, 이 또한 2年동안 이 책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20年의 心得을 累積하고, 秦漢에서 明靑의 百餘家의 名醫論述을 撰寫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傷寒論綱目·自序』에 “二十年동안 내가 傷寒書를 읽은 것만 百餘家에 이른다.”고 하였고, “六經의 순서에 따라서 각 條의 繁多함을 分析하여 仲景의 論으로써 綱을 삼고 歷代諸家의 말 중에서 仲景의 奧旨를 發明한 것으로써 目を 삼았다.<sup>21)</sup>”고 하였으니, 자신의 見解를 參考하여 編著하여 이룬 것이다. 그 나머지 저서도 마찬가지다.

『沈氏尊生書』의 판본은 淸·乾隆39年刻本과 沈氏師儉堂의 重刻本인 淸·乾隆49年師儉堂刻本과 그의 弟子인 安徽의 奇豐額의 刊刻本인 淸·乾隆49年奇氏安徽刻本과 麗川 方伯先生의 淸·乾隆刻本, 淸·道光23年南海劉聘璧刻本, 淸·道光24年刻本, 淸·同治13年甲戌年 湖北崇文書局刻本과 淸·光緒21年乙未年 上海圖書集成印書局鉛印本과 淸·宣統元年乙酉年 鉛印本과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에 소장된 淸抄本이 있다.

『沈氏尊生書』는 『脈象鏡類』, 『諸脈主病詩』, 『雜病源流犀燭』, 『傷寒論綱目』, 『幼科釋謎』, 『婦科玉尺』, 『要藥分劑』의 七種을 포함한다. 『沈氏尊生書』를 刊行함과 동시에 혹은 그 뒤에 또한 각각의 책의 單行本이 刊行되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刊行되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다만 單行本의 刊行年代와 현존하는 單行本의 종이를 비교하여 보면 全書를 刊行한 시기에 한 종류의 책의 刊行本이 全書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돌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의 記載에 의하면, 『雜病源流犀燭』 單行本은 淸·乾隆49年甲辰無錫師儉堂刻本, 淸·同治13年甲戌(1874年)湖北崇文

19)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4.

沈氏著作等身 而此書之成最晚 將付梓 問序于予.

20)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883.

前著『傷寒綱目』『雜病源流』『婦科玉尺』皆曉然于心與手目 一一笔之于書者也.

21)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605.

循六經之次 析各款之繁 以仲景論爲綱 歷代諸家之語足以闡明仲景者爲目.

書局刻本에 있고, 『傷寒論綱目』 단행본은 淸·乾隆49年甲辰無錫師儉堂刻本, 淸·同治13年甲戌(1874年)湖北崇文書局刻本, 石印本에 있으며, 『婦科玉尺』 단행본은 淸·乾隆39年甲午無錫師儉堂刻本, 淸·乾隆49年甲辰無錫師儉堂刻本, 淸·同治13年甲戌(1874) 湖北崇文書局刻本에 있으며, 『幼科釋謎』 단행본은 淸·乾隆49年甲辰無錫師儉堂刻本, 淸·同治13年甲戌(1874年)湖北崇文書局刻本에 있고; 『要藥分劑』 단행본은 淸·乾隆49年甲辰無錫師儉堂刻本, 淸·同治13年甲戌(1874年)湖北崇文書局刻本에 있다<sup>22)</sup>. 그 단행본이 나온 시기의 기록과 『沈氏尊生書』刻本の 시기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런 종류의 단행본이 실제로 全書에서 떨어져나와 流轉되던 일종의 版本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이 외에 나중에도 또한 단행본의 刊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幼科釋謎』의 民國華北國醫學院鉛印本과 1967年上海衛生出版社鉛印本, 『婦科玉尺』의 1958年上海衛生出版社鉛印本, 『雜病源流犀燭』의 1962年上海科技出版社鉛印本<sup>23)</sup> 등이 모두 單行本이다.

### 3. 沈金鰲의 醫學著作과 學術思想

沈金鰲는 젊어서부터 儒學에 精通하였고, 또한 醫學을 공부함에도 根源을 좇아서 『內經』, 『難經』, 『傷寒』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에 實質의이고 具體의인 것을 求하였다. 傷寒以後의 諸名家의 醫書를 두루 읽었는데, 分派와 師承이 다르므로 한결같지 않은데, 根源은 하나이므로 醫書를 읽는 자가 마땅히 精密하게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가 『沈氏尊生書·總自序』에서 “대개 醫術은 사람의 生死를 책임지는데, 무릇 一症을 다스림에 一方을 構成

하고 一藥을 쓰니, 醫法을 세우고 책을 쓰는 자는 精密하고 妥當하게 하지 않으면 後世에 誤謬를 남겨서 그 害를 입는 자가 반드시 많게 되며, 책을 읽고 법을 쓰는 자가 그 善법이 精密하고 妥當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방종되어 그 害를 입는 자가 또한 많다. …… 모두 7종 72권을 만들어서 總括하여 『沈氏尊生書』라 이름하였다. 대개 사람의 生命은 지극히 重하므로 반드시 그 重함을 알아서 尊貴하게 여겨야만 人命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sup>24)</sup>”라고 하여 醫學의 根本을 求하고 醫理를 求함에 精密함은 다 사람의 生命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이니, 그의 醫學思想의 根本은 實事求是와 尊生重命의 思想이라 할 것이다. 그의 醫學著作과 學術思想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雜病源流犀燭』

『雜病源流犀燭』은 『沈氏尊生書』의 절반정도의 分量을 차지할 정도로 量이 방대하며 그의 醫學思想의 精髓를 볼 수 있으며 또한 前人の 著述을 널리 採集하여 病情의 變幻과 病勢의 緩急을 闡述하였으므로 臨床家에서 꽤 歡迎을 받아서 後世에 끼친 影響이 많다<sup>25)</sup>. 총 三十卷으로 臟腑·奇經八脈·六淫·內傷外感·面部·身形 등으로 六門을 나누고, 肺病·咳嗽哮喘·疹子·大腸病 등 모두 92種病證의 源流를 論述하였다. 凡例<sup>26)</sup>에 의하면 每篇에 각각 그 疾病의 原委

24)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5.

蓋醫系人之生死 凡治一症 拘一方 用一藥 在立法著書者 非要于至精至當 則遺誤後世 被其害者必多在讀書用法者 非審乎至精至當 則冒昧從事 被其害者更多 …… 吾愧之 吾又憫之 因統會平日所讀方書 研審其意理 或采前人之語 或抒一己之見 參互考訂 輯爲 『脈象統類』一卷, 『諸脈主病詩』一卷…… 共七種 計共七十二卷 總名之曰 『沈氏尊生書』 蓋以人之生至重 必知其重而有以尊之 庶不至草菅人命也.

25) 李經緯·林昭庚 主編,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9, p. 673

26)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

22) 薛清泉 主編,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1, p. 340, 55, 436, 482, 175.

23) 嚴世芸 編,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學院出版社, 上海, 1991, p. 3061.

를窮究하여 밝혀 놓았고, 形症과 더불어 方治와 病情의 變幻, 病勢의 緩急, 病體의 輕重을 자상히 論하였다. 그리고 每篇의 뒤에 病脈과 脈法에 대해 수록하였으며, 疾病이 주로 發生하는 臟腑와 六淫에 따라서 篇首에 밝혔다.

『雜病源流犀燭』의 學術思想을 概括하면 根源을 探索하여 雜病을 精確하게 分析한 것이다. 雜病은 한 가지 종류의 病證에 대해 命名한 것으로,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서 最初로 보이는데, 仲景은 傷寒 이외의 여러 종류의 疾病을 通稱하여 '雜病'이라 하였고, 傷寒은 溫病을 포함하므로, 後世에는 傷寒·溫病이외의 內科病證을 總稱하여 '雜病'이라 하였다. 沈氏가 말하는 雜病은 이와는 달라서, 그가 『雜病源流犀燭·自敘』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病이 있음에 혹은 七情에 感觸되거나 혹은 六淫에 感染되어 皮毛와 肌肉과 經絡과 臟腑가 그 邪氣를 받아서 病이 이루어지는데, 病이 皮毛와 肌肉과 經絡과 臟腑사이에서 發生하므로 雜이라 말하는 것이다. 表裏와 寒熱과 虛實과 陰陽이 섞이고 합치기가 쉬워서 形症이 紛紛하여 어지러이 나오므로, 이리이러한 것 같으나 실은 아니다.”<sup>27)</sup>라고 한 것과 같이, 범위가 더 넓고 內傷外感을 나누지 않았으며 어떤 原因에 의한 것인지 論하지 않고 대략 皮毛·肌肉·經脈·臟腑에 發生한 病證들이 辨證과 治療의 時候에 있어서는 亂雜하고 뒤섞여서, 雜病이라 이름하게 되었으며, 반드시 그 山來를 찾아내서 그 變遷을 살피고 從流溯源한 연후에 그 正確한 施治方法을 분명하게 提示하였다<sup>28)</sup>.

沈氏는 歷代醫家の 師承關係가 서로 달라서 類派가 한결같지 않으므로, 일개 病證에 대한 認識에 있어서도 차이가 심하다고 여겨서, 하나의 病證이 본질은 하나이므로, 그 根源을 따루어 『內經』, 『難經』, 『傷寒』에서 根源을 구하지 않음이 없었고, 여기에 諸家の 說을 모아서 列舉하여, 그 辨證施治의 規律을 제시하였다.

沈氏는 氣功導引으로써 祛病延年할 수 있어서 方藥의 미치지 못하는 穴를 충분히 補充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每病方論의 뒤에 導引運功의 方法을 실었으며, 歸元·周天·行庭·通關 등의 運功方法을 상세히 소개하여 補助治療法으로 썼다. 동시에 養生調攝의 配合를 強調하여 修性情·節淫欲·服藥餌·調飲食을 主張하였다. 節欲保精은 또한 沈氏의 가장 큰 養生思想인데, 오직 房事를 禁忌視할 것을 主張한 것이 아니라, 房事に 節度가 있어야 함을 主張한 것이다. 修身養生에 있어서 節欲保精은 하나의 方面이므로, 만약 養精生精하면 精이 또한 充滿하여 氣가 旺盛해지고 몸이 健康해진다. 그러므로 節欲保精의에 더하여 養精生精하는 方法을 얻어서 行하면 精이 充滿하지 못함으로 인한 病을 앓지 않으며, 氣가 旺盛해지고 神이 堅固해진다고 하였다. 生精의 方法은 마땅히 藥餌와 食療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藥餌로는 '補天大造丸'과 '三精丸'과 같은 약을 久服하면 輕身延年하며 返老還童하는 등의 效果가 있으며, 食療는 清淡한 穀食이 養精하기에 가장 좋다고 하였다.

## (2) 『傷寒論綱目』

『傷寒論綱目』은 十八卷으로, 卷首에 總論을 놓고, 脈證·六經主證·陰陽·表裏·傳變·愈解 등의 篇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卷一에서 卷十五까지는 張仲景의 『傷寒論』 原文을 차례로 나열하여 綱으로 삼고, 後世醫家の 註解 중에서 仲景의 奧旨를 發明한 것을 골라 붙여서 目으로 삼았으며, 六經의 차례에 分屬하는 것은 柯琴의 說을 爲主

社, 北京, 1999, p. 27.

27) 田思勝 主編, 沈金鑿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26.

人之有病 或感七情 或染六淫 皮毛肌肉經絡臟腑 受其邪即成病 而病即發于皮毛肌肉經絡臟腑之間 故曰雜也 表裏易蒙 寒熱易混 虛實易淆 陰陽易蔽 紛形錯出 似是實非.

28) 沈金鑿 撰; 李占永 等 校注. 雜病源流犀燭(明清中醫名著叢刊),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4, p. 1.

로 하였고, 傷寒後證·傷寒所屬諸病·辨脈法·平脈法 등 육경의 차례에 분속되지 않는 것은 모두 뒤에 배열하였다. 引用書目이 46家に 달하는 데, 예를 들면, 朱肱·戴原禮·李杲·張介賓·柯琴·魏荔彤·許叔微·樓英·成無己·喻昌·龐安常 등이며, 그 중에는 傷寒의 大家뿐이 아니라, 朱震亨·張從正·李中梓 등의 內科雜家 등도 포함되어 있다.

沈氏의 『傷寒論綱目』全書는 太陽·陽明·少陽 등의 六經의 順序에 따라 排列된 것인데, 다만 各經의 안에 本經의 重要한 病證을 排置하여 標題로 삼아서 證을 種類別로 編輯하였다. 가령 太陽經中卷三列은 身搖·身痒·身疼·百節疼痛 등을 標題로 하여 排列하여 身痒痛을 따로 排置하였으며, 卷四是 嘔吐·可吐·不可吐 등을 標題로 하여 吐證을 따로 하나로 排列하여 類證 鑑別의 분명히 하였다. 每證의 아래에 또한 同證의 條文 및 同證의 條文의 禁忌證 등을 排列 하였다.

辨證方面에서도 精密하고 獨自의인 부분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動氣는 誤治한 뒤의 症狀이라 하여, 誤汗後에 臍下動氣하는 茯苓桂枝甘草大湯證과, 誤針後에 受寒하여 少腹動氣하는 桂枝加桂湯證과, 誤下한 뒤에 臍下動氣하는 梔子豉湯證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辨證分析한 부분을 보면 “이 세 條는 또한 動氣의 부류이다. 首條의 臍下悸는 腎水가 乘火하여 上克함이며 欲作이라고 말한 것은 아직 發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니 마땅히 미리 다스려야 한다. 二條는 陽氣가 퍼지지 않고 陰氣가 도리어 勝하여 寒邪가 凝聚하여 赤核이 된 것이니 이것이 奔豚의 徵兆이며, 少腹으로부터 心臟으로 치밀어 오르니 이 것이 奔豚의 증상이다. 총괄하면 臍下悸는 水邪가 虛를 틈타서 心을 범한 것이므로 茯苓을 君으로 하여 바르게 하고, 奔豚이 發하지 않고 小腹의 氣가 치밀어서 木邪가 客氣를 끼고 心을 능멸한 것이므로, 湯중에 桂枝를 더하여 木을 和平케 하면 奔豚이 저절

로 없어지게 된다. 하나는 안에 있어서 發하지 않고 하나는 表에 있어서 이미 發하였으니, 治療가 각기 다르다. 三條는 胃中이허가 空虛하여 邪氣가 上焦에 들어간 자는 心이 아래로 因하여 除됨이 아니므로 客氣가 膈에서 動하는 것이다<sup>29)</sup>”라 하여, 그 辨證이 詳細하고 合當하여 後學에 도움이 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 외에 類證方法을 써서 傷寒疑似證을 研究하였다. 예를 들면, 吐利·乾嘔·吐涎末·食欲嘔의 네가지 證狀이 서로 비슷한데, 病機는 同異가 있으므로, 이를 分辨하는 법을 제시하였다.

沈氏는 또 『傷寒論』에 論한 傷寒病證이 完全하지 못한 것을 王叔和가 編次를 잘못했기 때 문이라 여겨서, “『金匱』는 본래 仲景의 『傷寒雜病論』十六卷 중의 말로써 따로이 쓰여진 論이 아니다. 仲景의 글로써 仲景論중의 遺缺을 보충하니 지금은 비록 빌어서 쓰는 것 같으나, 그 때에 있다면 실은 빌린 것이 아니다.<sup>30)</sup>”고 하여 『金匱』의 百合·狐惑·陰毒·陽毒條文을 補入하여 綱으로 삼고, 後世의 注를 取하여 目으로 삼았다. 이 외에 溫疫·溫毒 등의 內容을 補入하였다. 또, 仲景에 屬하지 않는 것은, 李氏大法·東垣辨脈·胃風論·傷寒看目法·霧露論·妊娠傷寒治法 등과 같은 附注를 收錄하여 傷寒辨治를 補完하였다.

29)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674.

此三條亦動氣之屬也 首條臍下悸 乃腎水乘火上克 曰欲作者 言猶未發也 當預治之 二條乃陽氣不舒 陰氣反勝 寒邪凝聚 發爲赤核 是奔豚之兆 從小腹沖心 是奔豚之象 總之 臍下悸 是水邪欲乘虛而犯心 故君茯苓以正之; 奔豚自不發 小腹氣沖 是木邪挾客氣以凌心 故湯中加桂以平木 而奔豚自除 一在裏而未發 一在表而已發 所以治各不同也 三條胃中以下而空虛 邪之客上焦者 心不因下而除 故客氣動于膈也.

30)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862.

百合·狐惑·陰毒·陽毒 既爲傷寒證中之病 則『傷寒論』中斷不可缺 欲補其缺 則惟仍采『金匱』篇中之論而已 何也? 『金匱』等篇 本即仲景『傷寒雜病論』十六卷中之語 非別論也 以仲景書補仲景論中之缺 今雖假借 在當日實非假借也

(3) 幼科釋謎

『幼科釋謎』는 六卷으로, 前4卷은 먼저 앞에 總論이 있어서 兒科診斷大法를 서술하였고, 뒤에는 兒科의 二十四門證候를 열거하였는데, 각각 四言韻語 한 수로 注를 하여, 根源과 支流를 探索分析하여 醫理를 闡明하였고 暗記하기 편하게 하였다. 끝이 두 권은 諸方을 收集應用하여, 活用에 대비하였다. 그래서 책 중에 실린 내용이 이미 엇갈리거나 잡다하지 않고 重疊되는 것이 없어서, 비록 卷帙은 많지 않지만 醫理가 밝고 분명하여 讀者가 그 醫法을 遵守하면 비교적 쉽게 그 要領을 파악하여 幼科의 綱領이 될 만 하다<sup>31)</sup>. 이 책은 引用書目이 39家에 達하여, 錢乙·李仲南·危亦林·王肯堂·王綸·虞搏·孫思邈·樓英 등이 있으며, 그 중에는 兒科의 專門醫家뿐 만 아니라 陳士鏗·龐安時·張元素 등의 內科雜家 및 傷寒大家 등도 있다.

『幼科釋謎』의 醫學思想을 개괄하면 中和를 重要視하여 小兒를 診治한 것이다. 또, 그 文章이 簡潔洗練되고 議論이 精密妥當하며, 中和를 崇尚하였고, 또한 理·法·方·藥을 갖추어서, 현재 小兒科臨床에 있어서도 비교적 많은 實用價値가 있다.

沈氏는 小兒는 稚陰稚陽之體로써 易寒易熱 易虛易實하므로 함부로 攻伐 혹은 溫補하면 안 된다고 하여, 陰陽臟腑氣血의 機能을 調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狀態가 均衡을 잡게 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가령 小兒의 外感表證에 대해서는 알기 肌表에 있으며 解表하면 홀어지되 發하면 怯되된다고 하였으며, 만약 일찍 治療하지 않으면, 밖으로부터 안으로 侵犯하여 큰 病을 이루게 되어 病을 除去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治療上에서는 마땅히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하니, 春夏에는 辛涼한 升麻·柴胡·荊防·羌·葛 등을 쓰면 효과가 좋고, 秋冬에는 辛溫한 桂·參·蘇·二胡·二活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

31) 王伯岳 江有仁 主編, 中醫兒科學, 圖書出版 鼎談, 1994, 서울, pp. 868~869.

兒科는 古人이 '啞科'라 稱하였는데, 이는 그 言語가 分明치 않고 病情이 豫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의 小兒는 天真에 屬하여 脈 또한 根據로 할 만하지 못하니, 觀色察形하고 或은 三關指紋을 보아서 醫者가 근거를 삼아야 할 것이라 하여, 小兒의 診斷은 마땅히 察色觀形을 重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指紋을 살피는 것은 前人을 師承하여, 指紋의 色澤主病에 대하여 滑伯仁의 醫論을 追崇하였는데, 紋色이 紫色이면 熱證이고, 紅色이면 傷寒이고, 青色은 風이며, 白色은 疳風이며, 黃色 淡紅은 平常의인 것이므로 病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脣色을 觀察하는 데 있어서는 錢乙의 論을 좇았는데, 口唇의 색이 白色은 吐涎·嘔逆·吐血·便血이고, 紅色은 渴飲煩燥이고, 만약 오래 기침하고 설사하면서 紅色이면 이는 虛證이므로 涼藥을 함부로 쓰지 말라 하였다.<sup>32)</sup>

(4) 要藥分劑

清代 中期의 方劑學은 著作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本草學과 서로 促進·補充하면서 藥學의 重要內容과 構成을 이루었다. 方劑學의 科學性이 增強되면서 治療效果도 提高되었고, 藥學에 있어서의 위치도 또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는 '成方'이 모두 '本草'의 뒤에 붙여졌는데, 예를 들면 『本草綱目』 같은 것이다. 그런데, 清代에 이르러서는 方劑學의 分門別類하는 방식에 依據한 藥學 著作이 나오게 되었는데, 沈金鰲의 『要藥分劑』가 바로 그 것이다. 또한 淸의 黃元御가 著述한 『長沙藥解』는 張仲景『傷寒論』의 113方과 『金匱』의 175方에서 쓰인 160種의 藥物을 藥名과 藥性을 綱으로 삼고, 한 處方에서 쓰인 藥을 目으로 삼아서 病에 따른 治療를 說明하였다. 이와 같이 淸代의 本草學家들은 方劑學 研究를 重視하였다<sup>33)</sup>.

32) 尹淑香, 『幼科釋謎』學術思想淺析, 四川中醫, 1994, 10, p. 13.

33) 渠時光, 中國藥學史, 遼寧大學出版社, 1989, p.

『要藥分劑』는 十卷으로, 常用藥物 400餘種을 選用하여 十劑分類에 따라서 十卷으로 엮었으며, 각 약물의 맨 앞에 主治功用을 쓰고, 그 뒤에 藥性歸經과 전인의 醫論을 수록하였고, 다음에 使用禁忌를 썼으며, 가장 뒤에 炮炙方法을 썼다. 또한 按語를 붙여서 그 微細한 뜻을 闡發하였는데, 獨創인 부분이 많다. 이 책은 引用書目이 36家に 達하여 『本草綱目』, 『日華子本草』, 『本草衍義』 등의 本草醫籍 외에 王機·王昶·李杲·張元素·王執中 등 醫家の 論著와 그 외에 『博物志』類의 博物書籍들도 있다.

宣·通·補·瀉·輕·重·滑·澀·燥·濕은 본래 北齊의 徐之才가 效用에 따라 藥物을 나누는 方法인데, 宋의 『聖濟經』에서 各各의 뒤에 劑字를 더하여 方劑의 機能分類法이 된 것으로, 『傷寒方藥明理論·序』에서 制方之體를 宣·通·補·瀉·輕·重·滑·澀·燥·濕의 十劑로 나누는 것이니,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十劑의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이다.

沈氏의 辨論은 獨創의이고 見解가 지극히 深奧한데, 또한 醫家에게 警戒하기를 내가 怪異한 것을 좋아함이 아니고 실제로 人命이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辨論하는 것이라 하였다.<sup>34)</sup>

#### (5) 脈象統類

『脈象統類』는 一卷으로, 二十七脈을 모두 論하였다. 二十七脈을 浮·沈·遲·數·滑·澀의 六脈으로 統括하여 말하기를, “提綱要脈 不越浮·沈·遲·數·滑·澀六者”라 하였고, 浮는 表를 主觀하고, 沈은 裏를, 遲는 寒을, 數은 熱을, 滑澀은 氣血을 主觀하며, 또한 洪·芤·弦·虛·濡·長·散의 七脈이 浮에 統括되고, 短·細·實·伏·牽·革·代的의 七脈은 沈에 統括되고, 微·弱·緩·結脈은 遲脈에 統括되고, 緊·促·動脈은 數에 統括된다고 하였는데, 條理가 분명하고 順序가 정연하다. 각각

의 하나의 脈象에 대해서도 또한 각각 主하는 證候에 대해서도 論했는데, 예를 들면 浮脈이 風虛弦掉의 證候가 된다고 하였다. 또 左右兩手를 나누어 寸關尺三部의 主하는 病證을 나누어 論하였고, 더불어 脈을 兼하여 그 主하는 病證을 설명하였다. 그 책은 前人の 論述을 引用하지 않았으나, 發明한 바가 크다.

#### (6) 諸脈主病詩

『諸脈主病詩』는 一卷으로, 『脈象統類』에서 이미 各脈의 主하는 病證을 자세히 하였기 때문에, 글이 조잡하고 번거로워서 文意가 相關되지 않고 기억하기 힘들므로, 瀕湖脈法을 模倣하여 二十七脈主病詩를 지어, 脈과 病이 서로 符合되어 暗誦하기 편하게 하였다.

### III. 結 論

沈金鰲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대하여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沈氏의 醫書는 內·外·婦·兒의 諸科와, 理·法·方·藥·脈象·養生의 多方面을 包括하였고, 秦漢시대에서 明淸시대에 이르는 數百種의 文獻資料를 섭렵하여 그 量이 방대하여, 개인의 心得에다 또한 前人の 經驗을 總結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는 前人の 病症에 대한 인식에 그 流波마다 다르나, 그 病症의 本質은 하나이므로 그 根源을 미루어 『內』『難』『傷寒』에서 根源을 구하지 않음이 없었고, 여기에 諸家の 說을 모아서 列擧하여 그 辨證施治의 規律을 제시 하였으니, 그의 救本溯源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다.
3. 淸代의 實事求是의 學風에 영향을 받아서

206.

34)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1063.

病症에 있어서 實際的인 效果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沈氏는 一生동안 精力을 다해 中醫學을 研究하였으며, 또한 治學이 嚴格하고 慎重하여 實踐을 重視하였고, 總括的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능하였다.

4. 雜病源流犀燭은 沈氏尊生書의 절반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分量이며, 그 내용에서 沈氏의 醫學思想의 精髓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의 雜病은 傷寒論에서의 雜病보다 범위가 더 넓어서 內傷外感을 나누지 않았으며, 皮毛·肌肉·經脈·臟腑에 발생한 病證들이 亂雜하고 뒤섞여서 雜病이라 이름한 것으로, 그 原因과 變遷을 살펴서 辨證施治의 體系를 提示하였다.
5. 傷寒論綱目은 太陽·陽明·少陽등의 六經順序에 따라 仲景의 原文을 排列하고 여기에 各家의 注를 덧붙여서 仲景의 奧旨를 發明하였으며, 傷寒症狀와 傷寒疑似證에 대해 세밀하게 辨證分析하고 類證鑑別을 상세히 하여 證경의 遺缺된 部分을 補完하였다.
6. 幼科釋謎는 卷帙은 적지만 內容의 重疊이 없고 醫理를 분명히 밝혀서, 臨床에 활용되기 쉽게 만들었으며, 小兒의 診治에 있어서 中和를 重視하여 陰陽臟腑氣血의 均衡을 잡는 治療를 할 것을 主張하였다.

이와 같이 沈金鰲는 末年에 一生동안의 醫學 經驗을 總結하고 前賢의 論說을 精密하게 取舍하여 沈氏尊生書를 完成하여 臨床各科에 基準을 提示하였다.

## 參 考 文 獻

1. 俞慎初, 中國醫學簡史, 福建科學技術出版社,

- 福建, 1983.
2.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3. 民衆書館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66.
4. 高大民族文化研究所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員, 서울, 1989.
5.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6. 沈金鰲, 張慧芳等 点校, 婦科玉尺(中醫古籍名著叢書),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6.
7. 洪元植·尹暢烈 編, 中國醫學史, 一中社, 서울, 2001.
8. 徐寄鷗, 沈金鰲先生傳略, 江蘇中醫, 1963, 3.
9. 薛清泉 主編,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1.
10. 傅維康 編, 中國醫學史, 醫聖堂, 서울, 1993.
11. 嚴世芸 編,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學院出版社, 上海, 1991.
12. 李經緯·林昭庚 主編,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9.
13. 王伯岳 江育仁 主編, 中醫兒科學, 圖書出版鼎談, 서울, 1994.
14. 渠時光, 中國藥學史, 遼寧大學出版社, 1989.
15. 尹淑香, 『幼科釋謎』學術思想淺析, 四川中醫, 1994.
16. 沈金鰲 撰; 李占永 等 校注, 雜病源流犀燭(明清中醫名著叢刊),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4.
17. 張建明, 哮喘有因血虛論, 中醫雜誌, 1992.
18. 牛兵占 主編, 中醫婦科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19.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詩經集傳下, 傳統文化研究會, 서울, 1993.
20. 張奇文 主編, 月經病證(婦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21. 方廣 編註,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서울, 1992.
22. 巢元方 編, 巢氏諸病源候論, 大星文化社, 서울.
23. 張奇文 主編, 婦科雜病(女科醫籍輯要叢書), 人民衛生出版社, 1995.
24. 張機 主編, 仲景全書, 圖書出版 一中社, 서울, 1992.
25. 張奇文 主編, 胎產病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26. 李炳國 譯, 王叔和脈經, 癸丑文化社, 서울, 1985.
27.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圖書出版 一中社, 서울, 1992.
28. 傅沛藩等 主編, 萬氏女科(萬密齋 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29. 張奇文 主編, 婦科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30. 김창민 의 한글역저, 完譯 中藥大辭典, 圖書出版 鼎談, 1998.
31. 沈金鰲, 婦科玉尺, 自由出版社, 1986.
32. 廣東·廣西·湖南·河南辭源修訂組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33. 陳自明, 婦人大全良方(四庫全書本), 大星文化社, 서울, 1995.
34.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 第7回卒準委, 譯釋 丹溪醫論, 大星文化社, 서울, 1993.
35. 趙勉彙·朴炫局, 古代婦產科의 醫史學的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9, 1996.
36. 趙勉彙·朴炫局, 明清代 婦產科의 醫史學的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10, 1997.